

서문경제

2014. 7. 29

국제갤러리(주)

## 아트 갤러리

## 알렉산더 콜더 '목걸이'



알렉산더 콜더 '목걸이', 은과 천, 1940년작  
/사진제공=국제갤러리 ©2014 Calder Foundation,  
New York

피에트 몬드리안의 추상 그림을 움직이게 하고 싶다며 '움직이는 조각'을 창조했고 마르셀 뒤샹에게 '모빌'이라는 이름을 선물 받은 20세기의 거장 알렉산더 콜더(1898~1976). 그는 모빌의 창시자로 전 세계 미술 교과서에 이름을 올렸지만 조각가뿐 아니라 보석 세공자로서도 탁월했다. 모빌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정교한 균형감과 나선형, 조각 파편으로 이루는 형태 감각, 철사 하나로도 모든 것을 묘사해내는 드로잉 실력 등 콜더의 모든 미덕이 보석 장신구에도 고스란히 응축돼 있다. 콜더의 보석이 '착용가능한 예술'로 불리는 이유다. 콜더는 아내의 선물로도 종종 보석과 미니어처 작품을 제작했다. 1920년대부터는 동료 작가 조지아 오키프나 컬렉터 페기 구겐하임을 비롯해 영화배우와 패션모델 등 당대의 진보적인 멋쟁이들이 그의 보석에 매료됐다.

/조상인기자 ccsi@sed.co.kr